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

환 영 사

2026. 11. 25.

금 융 위 원 장

이 억 원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제8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박람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김건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님과,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님,**
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님,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님, 제임스 켈리 호주 재무부 차관보님, 토드 폭스 비자 경제역량 강화연구소장님, 숍넨두 모한티 GFTN 대표님,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 우상현 은행연합회 전무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금융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의 주제는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되었다”입니다.

주제를 처음 듣고, **참 정확한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금융’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늘 기술과 함께 변해 왔습니다.
창구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우리는 **금융이 바뀌는 모습**을 **단기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의 미래**는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AI는 **금융사 내부**에서 **상품 설계나 위험 평가**를
보조할 뿐 아니라,
이제는 **고객을 대신**해 상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규범과 주도권 경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변화를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게 **안착**시키고,
우리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
'다음 금융'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만큼,**
혁신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금융**을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변화**에 **과감히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Ⅲ. 향후 정책 방향

금융위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첫째,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성장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먼저, **금융권 AX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전은 지키되, **AI의 기능을 최적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 장치를 **전제**로
망분리와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도
마련하여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AX**를 이루는 과정에서,
AI 등 신기술 산업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금융의 눈'**도 키워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의 과실은 함께 나누는 동반 성장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 원칙** 하에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로 더욱 따뜻한 금융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기술은 **차갑고 효율적인 도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금융의 온기**를 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정된 정보**와 **신용평가 기술** 아래에서
소외되어 온 **"씬 파일러"**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편 등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만들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획기적인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신용평가체계**를 **한층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AI 에이전트 등 **AI 혁신서비스**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국민이 **금융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조건에 맞는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고,
지출과 **자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혁신의 속도만큼 금융의 안전도 높이겠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금융을 위협하는 수법**이
함께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기술을 활용한 대응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최근, **AI를 악용한 해킹**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금융권 AI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AI**로 **자동화한 공격** 앞에서
사람의 방어에 머물러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금융권이 **AI 기술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AI 기반 공격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금융권 AX를 더욱 **서두르겠습니다**.

AI를 통한 **방어 체계** 구축과,
제로트러스트에 **기반**한 **보안 설계** 등
최선을 다해 금융 보안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단 한 번의 피해로도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보이스피싱·신종피싱**에 대한
방어 체계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ASAP)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종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Ⅳ. 맺음 말씀

이 모든 과제들은 책상 위에서만 완성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금융회사, 핀테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융회사의 **노하우**와
그간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온
핀테크의 **창의적인 발상**이 서로 **연결**될 때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위는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참석자 여러분!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핀테크 축제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새로운 기술과 우리 금융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